

日本古代国家の形成過程と対外交流

中久保 辰夫

大阪大学出版会

고고자료를 이용한 고대 한일관계사 연구의 새로운 성과

『일본 고대국가의 형성과정과 대외교류』(中久保辰夫, 2017)

권 오 영
서울대학교

I. 머리말

II. 책의 구성

III. 책의 내용

IV. 새로운 성과

V. 앞으로의 기대

I. 머리말

나카쿠보 타츠오(中久保辰夫)선생은 일본 오사카(大阪)대학에서 학부, 석사,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고고학연구실의 조수로 근무 중인 신진 연구자이다. 評者는 2004년 8월부터 2005년 7월까지 1년간 연구년 출장으로 오사카대학 고고학연구실에 객원연구원으로 근무한 바 있다.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나카쿠보씨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고, 당시 일본고고학계의 최대 조사 성과로 평가되던 시토미야키타(蓼屋北)유적 출토유물을 관찰하러 시조나와테(四條畷)시 자료관에 가기도 하고, 韓式系土器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기도 하였다.

당시에는 일본 고고학계는 물론이고 고대사학계에도 큰 영향을 끼친 츠데 히로시(都出比呂志)선생이 퇴임을 목전에 두고 있던 시점이었다. 츠데선생의 영향으로 인해 오사카대학 고고학 연구실에는 다른 분야보다도 고분시대 연구자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나카쿠보씨도 마찬가지였다. 그때만 하더라도 고분시대 중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막연하게 한국 자료에 흥미를 두고 있음을 알았지만 본격적으로 한일 교섭의 고고학을 전공할지는 몰랐다.

평자가 연구년 출장을 마치고 한신대학교에 복귀한 후에도 나카쿠보씨와의 인연은 이어졌다. 2008년도에 풍납토성 경당지구에 대한 재발굴조사가 진행되고 막대한 양의 새로운 자료가 출토되면서 국내외 많은 학자들이 유물 관찰을 목적으로 한신대학교 박물관을 방문하였다. 2010년 나카쿠보씨는 오사카대학의 후배들을 데리고 풍납토성의 유물 관찰을 목적으로 방한하여 학교 주변에서 며칠을 숙식하면서 토기를 관찰하고 실측하면서 국내 젊은 연구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후배들에게 한국 자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목적도 띠고 있던 이런 행사는 2011년에도 이어졌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은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의 타카타 칸타(高田貫太)선생이 주도한 공동연구 “고분시대·삼국시대의 한일관계사의 재구축-왜와 영산강유역의 관계를 중심으로-”에 평자는 나카쿠보씨와 함께 참여하였다. 한국과 일본을 넘나들면서 중요 유적을 답사하고 출토유물을 조사하며, 발표회를 가졌다. 나카쿠보씨와의 오랜 만남은 평자에게도 큰 자극이 되었다. 토기자료에 대한 치열한 관찰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모색하고 기존 통설을 검토하는 그의 자세를 보면서 스스로의 학문하는 자세를 되새겨보는 기회가 되었다.

나카쿠보씨의 박사학위 논문은 2010년에 「고분시대의 도래계문화의 수용과 정치

권력』이란 제목으로 제출되었다. 그 후 대폭 수정을 거친 후 마침내 2017년 3월, 오사카대학 출판회에서 『일본 고대국가의 형성과정과 대외교류』란 이름으로 출간되었다.

Ⅱ. 책의 구성

이 책은 나카쿠보씨의 박사학위논문을 기초로 삼고, 2010년 이후 새로 발견된 자료를 추가하면서 대폭 수정·가필되었다. 책의 구성은 서장과 1, 2, 3, 4장, 그리고 종장으로 구성되었다.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된 셈인데 서장을 제외한 5개의 장은 개별적으로 발표된 논문들을 토대로 재구성하고 각 장마다 소결 부분은 새로 작성된 형태이다. 기존 발표논문은 총 16편이 이용되었다. 국내의 박사학위 논문이 개별 발표한 3~4편의 논문을 토대로 작성되는 관례에 비하면 매우 많은 개별 논문이 이용된 셈이다. 이럴 경우 장과 장, 장과 절의 연결이 어색한 모습을 보일 위험성이 있지만 중간 중간에 새롭게 작성한 글을 끼워 넣으면서 정연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각 장의 제목과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¹⁾

序章 본서의 목적과 과제

제1장 고분시대 토기에서 드러나는 시대의 특징

1. 고분시대 토기의 구성
2. 외래토기와 재래토기
3. 토기로 보는 문화의 융합-한반도계 토기의 수용과 생활문화의 변용
4. 소결-토기에 나타난 異文化 融合

제2장 3~5세기 日韓交流의 전개

1. 문제의 소재
2. 4세기 日韓交流論의 진전
3. 대외교류의 변화와 「공백」의 4세기

1) 책의 장과 절을 소개하는 부분에서는 가급적 한국식으로 변용하지 않았다. 필자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이다. 반면 서평에서는 전체적으로 일본식 표현을 한국식 표현으로 바꾸었다.

4. 하소(유공광구소호)의 창출과 5세기의 日韓關係

5. 소결-日韓交渉의 전개와 그 배경

제3장 한반도계 도래계 집단과 왜인사회

1. 한반도계 도래인의 거주지

2. 한반도계 토기의 수용에서 본 집단관계

3. 쓰에무라(陶邑)의 韓式系 연질토기의 변용과정

4. 스에키(須惠器) 수용에서 본 도래문화수용과 재래사회

5. 소결-도래계집단의 정착과 재래사회

제4장 고분시대 중앙정권의 질적 변화와 생산조직

1. 수공업생산 유적을 둘러싼 근년의 연구동향

2. 5세기 수공업생산의 전개

3. 후루이치(古市)·모즈(百舌鳥)고분군의 전개와 초기 군집분

4. 소결-카와치(河内) 정권의 권력기반

終章 일본 고대국가 형성론에 관한 이론적 전망

1. 동아시아의 정세와 왜인사회

2. 일본 고대국가의 형성과 대외 전략

다소 장황해보이지만 장과 절까지 모두 소개한 이유는 이 책의 장과 절이 수미일관하게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선 필자는 서장에서 이 책의 논점 4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그것은 고분시대 토기론, 고분시대 한일교섭의 전개, 한반도계 도래인과 일본열도의 재래사회, 도래인이 담당한 역할과 고분시대 정권교체론 등이다. 각각의 논점은 모두 순서대로 1~4장에 배치되었다.

終章은 본문의 내용을 단순히 정리하는 데에서 머물지 않고 일본과 한국을 넘어서서 세계 고고학계를 상대로 “일본식의 고대 국가 형성에 관한 고고학적 모델”을 제시하는 야심찬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16년도 세계고고학대회를 일본이 주관하면서 일본의 고분시대 연구 성과, 특히 츠데 히로시선생의 전방후원분 체제를 이론적 토대로 삼고 다양한 세션을 열었던 것이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 해에

8,000건에 달하는 발굴조사에서 생산된 막대한 양의 출토자료를 소재로 수립된 학문적인 성과를 세계 학계를 향해 발신하려는 일본 고고학계의 시도가 본격화되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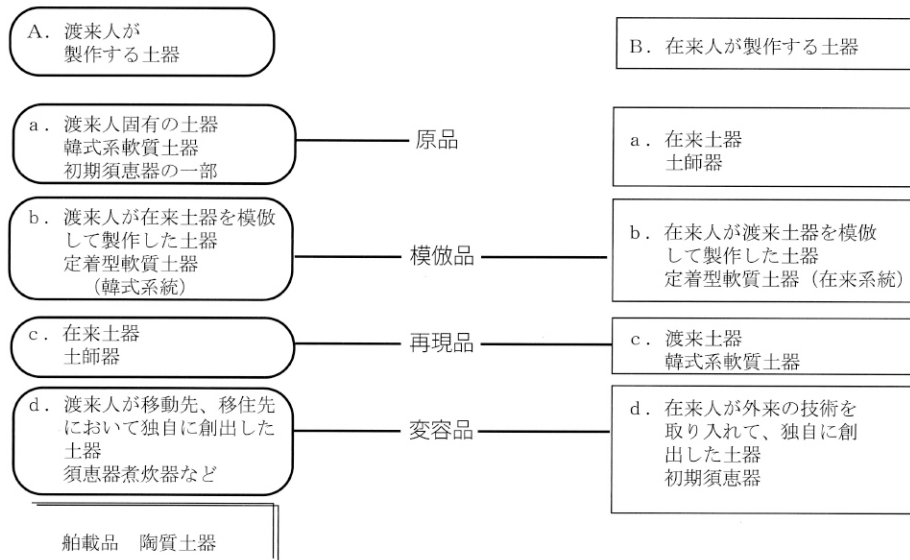
서장과 종장을 제외한 4개의 장은 그 아래에 4~5개의 절을 두고 있는데 마지막의 절은 소결의 형태로 앞의 내용을 정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소결이 필요한 이유는 이 책의 서술 방식이 기본적으로는 토기에 대한 분석을 중심에 놓고 있으면서도 취락, 고분, 수공업생산, 외래문화와 재래문화의 혼효, 고대국가 형성 등 매우 다양한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자칫 논의가 산만해질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일 것이다. 자칫 동일한 소재와 방법론이 반복되면서 흥미를 잃을 위험성을 피하기 위한 장치로서 필자의 장기를 각 장에 하나씩 배치한 교묘함(?)도 보여주고 있다. 1장에서는 한반도계 토기와 재래토기를 아울러서 조리 용기에 대한 분석을, 2장에서는 하지키(土師器) 중 소형의 丸底토기, 고배, 그리고 경질의 유공광구소호 분석을, 3장에서는 스에키 이중구연호 분석을 포함시켜서 단조로움을 피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Ⅲ. 책의 내용

방대한 내용을 제한된 지면에서 소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각 장별로 특징적이고 논쟁의 가능성이 많은 부분만 소개하고자 한다.

1장에서는 고분시대에 제작, 사용된 토기를 통해 주민집단의 문제를 다루면서 스에키와 하지키 제작자는 기본적으로 무관하다는 점, 한식계 연질토기는 渡來人²⁾의 토기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일본 야요이 토기의 전통을 잇는 하지키를 재래토기로 표현하면서 도래인과 관련된 토기(한식계 연질토기와 스에키)와 재래토기의 상호관계를 원품, 모방품, 재현품, 변용품 등으로 나누면서 개념화하였다(그림 1). 스에키와 도질토기, 한식계 연질토기와 하지키 등의 상호 영향관계를 도식화한 부분은 약간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일본 고분시대 토기를 이해하는 데에 유효한 틀로 평가된다.

2) 평자는 도래인, 도래문화보다는 한반도계 이주민, 한반도계 이주문화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나카쿠보씨는 한반도계 도래인, 한반도계 도래문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가급적 필자의 표현을 존중하여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림 1] 토기와 제작자의 관계에 대한 모식도

2장에서는 3~5세기 한일간의 교섭이 왜 사회의 변동을 추동하였다는 전제를 깔고 일본열도의 교역망의 실태와 그 변화상을 추적하였다. 그 결과 한반도 남부와 북부 규슈를 연결하던 이른바 하카타만(博多灣) 무역이 4세기 중엽부터 쇠퇴하기 시작하여 5세기가 되면 전라도를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 서남부의 토기가 일본열도에서 출현하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3장에서는 한식계 토기가 출토되는 취락이라도 그 성격에는 차이가 있어서 도래계 집단의 비중이 높은 오사카(大阪) 나가하라(長原)유적, 시토미야키타(薮屋北), 나라(奈良) 난고(南郷)유적군 등을 도래계집단정착형 취락, 이와 반대로 한식계 토기의 비중이 높지 않은 오사카의 고사카아이(小阪合)유적을 재래집단주체형 취락으로 양분하였다. 종전 한식계 토기가 출토되는 취락을 무차별적으로 한반도계 이주민으로 간주하던 수준의 인식을 심화시킨 셈이다. 도래계집단정착형 취락과 재래집단주체형 취락이 공존하는 긴키(近畿)의 양상을 볼 때 도래계 집단의 거주는 자유로운 것이 아니며, 수공업생산과 밀접한 관련을 맺은 것으로 보고 있다.

4장에서는 나라지역에만 首長居館과 工房이 병존하는 복합공방군이 존재한다는 기존 견해를 부정하였다. 그리고 河内政權論³⁾의 입장에 서서 나가하라유적에서 보듯

3) 4세기 후엽~말엽이 되면 종전 야마토(大和)분지를 중심으로 조영되던 거대 전방후원분이 카와치(河内), 이즈

5세기 이후 도래계집단의 정착과 신기술도입에 의한 카와치코(河内湖) 주변의 개발과 그 경제력을 기초로 새롭게 등장한 유력성원층(도래계집단이 포함된)을 중앙권력이 직접 지배질서에 넣었다고 보았다. 즉 河内政權의 경제적 기초는 도래계집단의 경제력이란 논리이다. 도래계 집단을 매개로 하여 다양한 기술 도입에 성공하면서 군사, 수공업, 교통, 생활의 변화가 초래되었고 인구증가와 잉여의 축적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는 일본 고대국가 형성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논리이다.

종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다양한 주제들을 소화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생략한다.

Ⅳ. 새로운 성과

일본열도에 정착한 한반도계 이주민에 대한 연구는 문헌적인 연구가 먼저 진행되었다. “귀화인”이란 용어로 표현된 이주민에 대한 연구는 문헌에 나오는 도래계 씨족의 구성과 일본사에서의 위상 해명이 연구의 목적이었다.

고고학적 발굴조사의 폭증에 의하여 일본열도 외부에서 들어온 주민집단의 물적인 증거가 선명해지면서 연구의 주도권은 고고학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귀화”와 “귀화인”이 지닌 용어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도래”와 “도래인”이란 용어가 사용되었다.

고고학적으로 도래인 연구를 체계화한 대표적 연구자가 카메다 슈이치(龜田修一)이다. 그의 연구(龜田修一 1993, 1997)에 의해 기본적인 개념의 정리가 이루어지면서 한반도계 이주민 연구는 본 궤도에 올랐다. 지역적으로 보면 카와치(河内)에 대한 연구는 타나카 키요미(田中清美), 야마토(大和)는 반 야스시(坂靖)와 아오야기 타이스케(青柳泰介), 오오미(近江)는 오오바시 노부미(大橋信彌)와 하나다 카츠히로(花田勝廣), 하리마(播磨)는 토미야마 나오토(富山直人)의 역할이 컸다.

1987년에 발족한 韓式系土器研究會는 정기적인 연구회와 유물 관찰을 통하여 긴키(近畿)지역의 고분시대 연구자들에게 일본열도 출토 한반도계 토기는 물론이고 한반도 남부지역 원삼국-삼국시대 토기문화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였다. 이런 분위

미(和泉)로 이동하면서 정치의 중심이 나라에서 오사카지역으로 이동한다는 견해이다.

기에 힘입어 여러 차례의 특별 전시회가 열렸으며(大阪府立彌生文化博物館 1999, 2004; 安土城考古博物館 2001; 大阪府立近つ飛鳥博物館 2004, 2008), 한반도계 이주민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성과(大橋信彌・花田勝廣 編 2005)가 출판되었다.

일본 고분시대 중기, 대략 5세기 무렵 긴키지역에 수많은 한반도계 이주민이 존재하였고 그들이 남긴 취락과 고분, 공방의 존재가 선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아울러 고대 한일관계사의 중심적인 내용은 임나일본부설이 아니라 양 지역의 주민 간 이주와 교류의 역사라는 점을 분명히 한 점이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

우선 한식계 토기가 출토되거나 한반도와 연결되는 묘제, 제의의 흔적을 통해 한반도계 이주민의 거주가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재래적인 요소, 예컨대 하직의 공존, 무덤에 하니와를 수습하는 장제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점에서 나카쿠보씨가 거둔 성과는 한반도계 이주민이 중심이 된 취락, 재지의 인물들이 중심이 된 취락을 변별해냄으로써 이른바 도래계 문물에도 다양한 편차가 있음을 규명하였다는 점이다.

두 번째 아쉬운 점은 긴키지역에 수많은 한반도계 이주민의 존재를 규명하였지만 도대체 그들은 왜 그 곳으로 이주하였고 그들의 역할은 무엇이었는데에 대한 해명이 별로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나카쿠보씨는 한반도계 이주민들이 주로 수공업생산에 종사하였고, 5세기 이후 카와치지역의 급속한 개발, 河内政權의 탄생에 이들의 역할이 있었음을 규명하였다는 점이다.

이상의 두 가지 요소가 기존의 한반도계 이주민과 이주문화 연구와 차별성을 보이는 나카쿠보씨의 연구의 도달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V. 앞으로의 기대

이렇듯 나카쿠보씨의 새로운 연구성과는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는 책의 곳곳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임나일본부설⁴⁾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으며, 야마토 왕

4) 나카쿠보씨가 이해하는 임나일본부설은 “4세기 중반부터 200년 간 야마토(大和) 조정이 남부조선을 지배하고 있었다.”이다.

권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활동을 통하여 기술자를 입수하였다는 일본학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다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아쉬운 점이 보인다.

한식계 토기가 출토하는 유적을 세분한 것은 분명히 진일보한 면모이지만 도래집단의 자유의지보다는 수용자, 즉 재래집단의 의지를 보다 중요한 것으로 본 점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확실히 난고유적의 工房이 카츠라기(葛城)씨와, 후루(布留)유적이 모노노베(物部)씨와 관련됨은 인정하지만 도래집단 모두가 하층의 수공업 기술자로 편제된 것은 아닐 것이다. 오사카 다카이다야마(高井田山) 고분이나 나라의 니자와센즈카(新澤千塚) 126호분의 피장자와 같이 높은 신분의 인물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日本書紀』에 보이는 백제 왕자 곤지의 존재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긴키지역의 한반도계 이주민의 속성을 기술자로 설명한 점은 초점을 선명하게 한 효과를 거둔 반면, 다른 측면이 감추어지는 부작용을 낳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한계는 토기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은 이 책이 근본적으로 안을 수밖에 없는 한계일 수 있다. 고분과 祭場, 금공품 등에 대한 연구가 동시에 진행되지 않을 경우 한반도계 이주민의 전모를 밝히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앞으로 나카쿠보씨의 연구가 토기와 취락 이외의 분야로 확장되면서 이른바 도래문화 연구의 새로운 전기를 기대해본다.

※ 이 책에 대한 서평을 작성하기로 결정한 후에 최근 일본에서 이미 서평이 나왔음을 알게 되었다(土田純子, 2017, 『考古學研究』254, 考古學研究會). 혹시라도 선입견이 작동할까 우려되어 의도적으로 일본에서의 서평은 읽지 않고 이 글을 작성하였다. 독자들은 일본에서의 서평을 함께 읽는 것이 이 책의 성과와 한계를 인식하는 데에 더 유익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龜田修一, 1993, 「考古學から見た渡來人」, 『古文化談叢』30(中), 九州古文化研究會.
- _____, 1997, 「考古學から見た吉備の渡來人」, 『朝鮮社會の史的展開と東アジア』, 山川出版社.
- 大橋信彌・花田勝廣 編, 2005, 『ヤマト王權と渡來人』, サンライズ出版.
- 大阪府立近つ飛鳥博物館, 2004, 『今來才伎-古墳・飛鳥の渡來人』, 平成16年秋季特別展.
- _____, 2008, 『近つ飛鳥と渡來人』, 平成20年春季特別展.
- 大阪府立彌生文化博物館, 1999, 『渡來人登場』, 平成11年春季特別展.
- _____, 2004, 『大和王權と渡來人』, 平成16年秋季特別展.
- 大阪府立狹山池博物館, 2016, 『河内の開發と渡來人』, 狹山池築造1400年度特別展.
- 安土城考古博物館, 2001, 『韓國より渡り來て』, 平成13年度春季特別展.

